

소크라테스 '2년 연속 20홈런' 왕

KIA '홈런 군단' 변신, 1위 독주 원동력...V12 탄탄대로

'24호' 김도영·'18호' 최형우 등 '109개' 합작...공동 1위 "팬들이 즐거우 야구" 이범호 감독 야구 철학 진가 발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외국인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2년 연속 20홈런 기록을 달성했다.

KIA는 대포 군단답게 올 시즌 20홈런 타자를 2명이나 보유하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지난 19일 한화와의 원정 경기에서 5-3으로 앞선 9회초 승부에 쐬기를 박

는 투런 홈런을 쏘아올렸다. 이 대표로 소크라테스는 지난해 20개에 이어 2년 연속 20홈런 고지를 밟았다. 앞서 1회초 문동주로부터 좌측 담장을 넘는 솔로 홈런을 터뜨린 소크라테스는 이날 멀티 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2022년 KIA 유니폼을 입은 소크라테스는 그해 127경기에 출전해 17개의 홈런과 3할대의 타율을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해에는 142경기에 출전해 홈런 20개, 안타 156개, 타점 96개, 득점 91개를 수확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홈런과 안타, 타점, 득점 모두 팀 내 최다 기록이다.

올 시즌은 21개의 홈런을 터뜨리며 두산의 양석환과 함께 홈런 부문 공동 6위에 올라있다. 전반기에 17개의 타구가 담장을 넘어갔고, 후반기 들어 10경기 만에 홈런 4개를 추가했다.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KBO 데뷔 이후 첫 30홈런도 가능할 전망이다.

올 시즌 KIA는 '홈런 군단'으로 변신했다. 10개 구단 중 삼삼과 함께 가장 많은 홈런을 날렸다.

20일 현재 KIA는 109개의 홈런으로 공동 1위에 올라있다. 최하위 키움의 67개와는 무려 42개 차이이다.

KIA는 지난해 총 101개의 홈런에 그쳤다. 하지만 올하는 경기당 평균 1.17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팀 내 가장 많은 홈런을 날린 선수는 김도영(24개)이다. 이어 소크라테스(21개), 최형우(18개), 나성범(17개) 등의 거포들도 홈런 퍼레이드에게 가세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홈런을 친 선수는 김도영과 소크라테스 2명이다. 최형우도 20홈런까지 단 2개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10개 구단 중 20홈런 타자를 2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팀은 KIA와 SK(강백호·로하스)뿐이다.

프로야구의 백미는 무엇보다 홈런이다. 호쾌한 타격과 시원한 홈런은 관중을 끌어모으는 절대적 요소다.

현재 KIA가 선두를 독주하고 있는 원동력도 리그 최고의 핵타선에 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대권을 노릴 수 있는 이유이다.

취임 당시 다짐했던 이범호 감독의 팬들을 위한 야구철학이 빛을 발하고 있는 올 시즌이다.

무더운 더위를 씻어낼 KIA의 시원한 한방이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주철성 기자



지난 20일 광주 영주체육관 국민생활관 펜싱훈련장에서 열린 '가족과 함께하는 펜싱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펜싱 체험을 하고 있다. <서구청 펜싱팀 제공>

'펜싱'...체험하고 소통하다

서구청 펜싱팀 '가족과 함께하는 펜싱교실' 호평

광주 서구청 펜싱팀이 지역민들과 체육활동을 통한 교류의 장을 마련해 호평을 받았다.

서구청 펜싱팀은 지난 20일 영주체육관내 국민생활관에서 관내 20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2024 가족과 함께하는 펜싱교실'을 개최했다.

'스포츠타와 함께하는 서구청 생활체육교실' 운영 시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펜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론과 기본 동작, 자세 교육 등을 받고 실전 대련도 하며 뜻깊은 추억을 공유했다.

1일 감사로 깜짝 변신한 2012 런던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최은숙은 "다소 생소한 펜싱을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룹을 나눠 기초적인 자세부터 대련까지 수준별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다"며 "펜싱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집중력, 판단력, 전략적 사고력 등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스포츠다. 이러한 펜싱의 매력을 더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2024 타이페이아시아안유도오픈대회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황수련(왼쪽)과 조윤의가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교통공사 제공>

광주교통공사 황수련·조윤의 타이페이아시아안유도오픈 '銀·銅'

조선대 배경은 동메달

광주교통공사 황수련과 조윤의가 2024 타이페이아시아안유도오픈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다.

황수련은 지난 19일 대만 타이페이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 -52kg급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수련은 8강전서 황안지연(대만)을 발뒤축길기 절반승으로 이긴 뒤 준결승서 찬유정(대만)을 안다리길기 한판승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황수련은 결승서 쉐이씨(대만)를 상대로 접전 끝에 팔가로우워끼기 한 판승을 올렸다.

조윤의는 여자 -57kg급 동메달을 차지했다. /박희중 기자

조윤의는 8강서 리우 쑤린(대만)을 상대로 발다리되지기 절반승을 거뒀으나 준결승서 이스턴 텡카(호주)에 안다리 절반패를 당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조윤의는 동메달 결정전서 린 웨이팅(대만)을 발다리길기 한판으로 꺾고 3위를 차지했다.

여자 -70kg급에 출전한 배경은(조선대)은 8강전서 코화광(대만)에 지도 3개를 뺏으며 반칙승으로 거둔 뒤 준결승서 미들턴 사야(호주)에 허벅다리길기 절반패를 당했다.

배경은은 심기일전한 동메달 결정전에서 리우 유란(대만)을 가로누르기 한판으로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희중 기자

'봉주르, 파리!'...태극전사 본진, 결전지 입성



금메달 5개 '↑'·종합순위 15위 '↓' 목표

PARIS 2024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결전지 프랑스 파리 땅을 밟았다.

대한체육회 본부 임원(18명)과 펜싱(20명), 탁구(10명) 선수단을 포함한 48명의 본진은 20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다.

본진 기수로 선정된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 만형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을 필두로 한 이들은 14시간 넘는 비행 끝에 파리에 입성했다.

선수들은 다소 지친 기색이었지만, 밝은 표정으로 파리와 첫 인사를 나눴다.

26일 파리 센강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11일까지 이어지는 파리 올림픽엔 총 21개 종목 260명(선수 143명·경기 임원 90명·본부 임원 27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참가한다.

단체 구기종목의 부진 등 여파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래 48년 만에 가장 적은 선수단이 나서는 우리나라는 금메달 5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순위 15위 이내 입상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파리에 도착하니 긴장감이 느껴진다. 초기에 목표한 것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수단이 줄어들며 성적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양궁과 펜싱, 태권도, 수영, 배드민턴 등이 메달 레이스를 이끌어 줄 거로 기대되는 종목들이다.

12일 배드민턴, 사격 등을 시작으로 종목별로 속속 파리에 들어오고 있는 선수단의 상당수는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하계 올림픽 사 전캠프인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에서 담금질하고 있다.

파리 인근 퐁텐블로 프랑스국가방위 스포츠센터(CNSD)에 차려진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엔 이미 배드민턴, 수영 경영 대표팀 등 130여 명이 지내고 있으며, 이날 도착한 펜싱 대표팀도 합류한다.

태극전사들은 개회식에 앞서 25일부터 경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 양궁 대표팀이 랭킹 라운드에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구본길이 20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공항 2터미널에서 태극기를 흔들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나서며, 단체 구기종목 중 유일하게 이 표팀은 독일과 대회 첫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우상혁·김서영, 파리 센강 개회식 기수

2024 파리 올림픽에 출격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 가운데 개회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앞장설 선수는 우상혁(육상·윤인시청)과 김서영(수영·경북도청)으로 결정됐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1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선수단 사전 캠프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 공개 행사를 통해 취재진과 만나 "우상혁

과 김서영이 개회식 기수를 맡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26일 개회식 이후 바로 경기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우상혁과 김서영 오는 26일 파리 센강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전 세계 관중과 시청자들에게 당당한 발걸음을 보여주게 됐다.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배구 여제' 김연경(은퇴)과 황선우가 공동 기수로 개회식을 책임졌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는 펜싱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수를 맡았다. 2012 런던 올림픽 때는 남자 핸드볼의 윤경선(은퇴)이 나섰다.

남자 선수 가운데 주장은 펜싱



우상혁 김서영

사브르 대표팀의 베테랑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여자 주장은 김소영(인천국제공항)이 선정됐다. /연합뉴스